

제249호 (2010. 3. 8)

■ 건설 경기

· 2월 CBSI 1.3p 상승, 2개월 연속 70선으로 부진

■ 정책·경영

· 해외건설 확대-글로벌 인재 확보가 핵심 경쟁력
· 건설 현장의 내국인·외국인 공존 방안 모색

■ 정보 마당

· 1월 미국 주택시장, 가격·판매량 하락세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은 富國으로 가는 핵심 산업

2월 CBSI 1.3p 상승, 2개월 연속 70선으로 부진

- 예년 대비 지수 상승폭 크게 둔화, 민간 건설경기 회복 부진 영향 -

■ 2월 지수 상승폭 과거 평균치 대비 크게 낮아...민간 건설 회복 부진의 영향

-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소폭(1.3p) 상승한 77.6을 기록함.
 - 이로써 지수는 1월에 이어 여전히 70(기준선 100)선에 머물렀으며, 이는 지난 1월을 제외하면 전고점인 작년 7월(99.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1월 조사시 2월 지수 전망치가 1월보다 15.1p 상승한 91.4를 기록해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2월의 실제 조사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미분양 주택 수 재증가, 일부 주택업체 위기 등 민간 건설경기 회복 부진으로 예년에 비해 지수 상승이 부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가 70선에 머물.
- 지난 3년 간 통상 비수기인 1월 대비 2월의 상승폭이 평균 4.0p(과거 5년 평균 상승폭 8.6p)이었음을 감안할 때도 올 2월 지수 상승폭은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임.
 - 2월 공공 발주 물량이 건설업체들이 지난 1월에 보인 기대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2월 들어 주택업체의 위기설이 다시 대두되는 등 민간 건설경기 회복이 여전히 부진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구 분	200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0.0	86.6	92.2	99.3	87.2	96.1	86.4	79.3	82.5	76.3	77.6	91.4	88.9	
규모 별	대형	83.3	100.0	92.3	114.3	107.1	114.3	100.0	84.6	100.0	93.3	92.9	100.0	100.0
	중견	91.9	78.1	97.2	105.9	100.0	110.0	103.4	88.5	77.8	76.9	80.0	96.2	84.0
	중소	62.5	80.5	86.4	74.2	49.3	59.0	50.9	62.7	67.2	55.6	56.9	75.8	81.4
지역 별	서울	89.7	97.5	93.9	114.6	102.7	103.0	102.2	85.7	90.6	85.9	90.1	96.3	94.4
	지방	65.0	66.5	83.6	69.8	64.2	71.1	64.6	69.5	70.2	61.2	59.6	83.7	80.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중견·중소업체지수 소폭 상승, 대형업체지수는 소폭 하락

- 업체 규모별로는 중견 및 중소기업지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대형업체지수는 소폭 하락함.
 - 대형업체지수는 지난 1월 전월 대비 6.7p 하락해 기준선을 회복한 지 1개월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한 데 이어 2월에도 소폭(0.4p) 하락한 92.9를 기록함에 따라 지수의 2개월 연속 하락과 함께 전체 지수 상승을 저지함.
 - 중견업체지수는 전월 대비 3.1p 상승한 80.0을 기록. 이는 지난 1월 지수가 지난해 3월 (66.7) 이후 10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데 따른 통계적 반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1.3p) 상승에 그쳐 56.9를 기록, 2개월 연속 50선에 머물.

■ 인력·자재수급지수 양호, 자금 관련 상황 소폭 개선

- 인력 및 자재부문 수급이 아직 양호한 가운데, 자금 관련 상황은 2월 들어 소폭 개선됨.
 -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2.9p, 4.1p 하락했으나, 지수 자체는 103.2, 101.2를 기록해 아직까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지수는 각각 기준선(100)에 조금 못미친 95.0, 88.3을 기록해 상황이 아직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전월 대비로는 4.3p, 1.2p 상승해 어려운 정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3월 전망치 11.3p 상승한 88.9, 민간 건설경기 회복이 관건

- 3월 전망치는 2월보다 11.3p가 상승한 88.9를 기록. 이는 건설 비수기가 완전히 지나감과 동시에 3월부터는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공공발주 물량 확대를 기대한 때문으로 판단됨.
- 3월에는 공공 발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분양 물량의 재증가, 일부 주택업체의 위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 체감경기 향상의 관건은 민간 건설경기의 정상화 여부임.
- 현재로서는 주택 부문을 비롯한 민간 건설경기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낮아 3월 이후 CBSI가 계절적 요인 및 공공 발주물량 증가에 의해 상승하더라도 당분간 90선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해외건설 확대-글로벌 인재 확보가 핵심 경쟁력

-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기업의 인재 양성 방향 -

- 최근 건설시장의 글로벌 추세와 함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인재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몇몇 대기업들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는 국내 재교육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 건설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인재 수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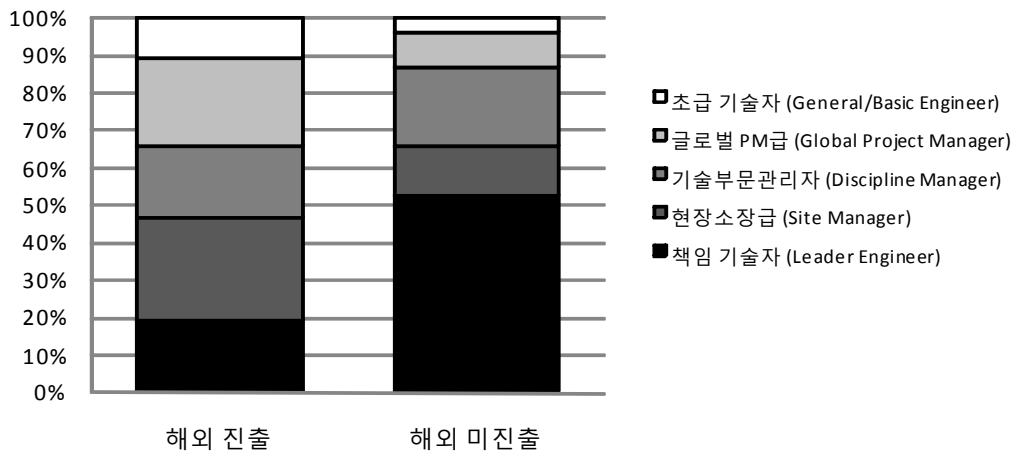
- 건설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주력 상품에도 변화를 보임.
 - 건설기업들의 주력 상품은 전체적으로 현금성 높은 주택과 건축 부문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대기업을 경우 상대적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플랜트 설비와 발전/에너지 시설 분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는 최근 중동지역의 유탄플랜트시장 및 원자력 발전소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녹색성장의 기조에 따라 발전/에너지시설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 해외 진출 여부와 기업 규모는 비례 관계를 나타냄. 즉, 대기업을 경우 응답자의 약 90%가 해외 진출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분석 결과 주력 상품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 기존의 전통적인 상품**의 경우 ‘책임기술자’와 ‘현장소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플랜트 설비에서는 ‘글로벌PM’, ‘기술부문 관리자’ 순으로 응답함.

*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30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응답건수는 총 100건으로 대(26건)·중(38건)·소(36건)기업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설문내용은 기업들의 인재 양성 현황과 수요를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됨.

** 주거/휴가시설, 일반건축물 등 건축시설물과 교통시설, 단지/국토 등의 토목시설물의 의미함.

- 전통적인 상품에서는 시공기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플랜트설비는 대규모 사업이면서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해외진출 여부별로도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해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진출 기업의 경우 ‘현장소장’, ‘글로벌PM’ 순으로 응답한 반면, 해외 미진출 기업은 ‘책임기술자’, ‘기술부문관리자’ 순으로 응답함.
 - 이는 해외진출 기업의 경우 ‘사업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미진출 기업의 경우 시공기술 확보를 우선적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판단됨.

〈해외진출 여부별 인재 육성 요구 수준〉



■ 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 필요

- 기업들의 주력 상품과 해외 진출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가 다르므로 이러한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개선이 필요함.
 - 기업들이 전통적인 주력 상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기술 요소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정 및 강사진이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변화가 필요함. 이는 교육기관들이 기업의 요구를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

김윤주(연구원·yjkim@cerik.re.kr)

건설 현장의 내국인·외국인 공존 방안 모색

- 적정 인력 규모 산정과 적정 노무비 확보·처우 개선 등 선행되어야 -

■ 건설 현장 내·외국인 공존 : 균형적 접근 필요

-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충원 및 권익 보호’와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 보호 및 숙련 인력 기반 확보’ 간 균형적 접근 필요
 - 외국인력 없이는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허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반면, 불법 체류라는 약점을 악용한 인권 침해 사례도 다수 보도됨.
 - 건설업 취업자수는 2010년 1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0개월째 감소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외국인력이므로 일자리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하여 이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양자 모두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음.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건설 현장 인력 수급 상황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 내국인력의 수급 상황 및 대응책
 - 건설사업주 및 근로자의 약 70%는 건설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공장 제작과 외국인력 도입을 병행하여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많아 내국인 숙련인력 육성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음.
- 외국인력 현황, 활용 이유, 영향 및 허용 방식
 -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20.7%, 건설업체 응답에 의하면 8.9%임(모든 현장에 대한 평균).
 -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는 ‘외국인력의 임금이 낮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과 ‘건설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음.
 - 외국인력 투입이 많아질 경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내국인 숙련인력 기반이 무너진다’, ‘품질이 저하된다’, ‘재시공이 많아진다’ 등의 응답이 많음.

* 전문건설업체 대상 441부, 건설근로자 대상 1,330부에 대한 분석 결과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2009).

- 외국인력이 내국인력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로자에 의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도 떨어진다’는 응답이 80% 이상임.
- 외국인력 허용 방식에 대해 근로자는 ‘외국인력의 취업을 전면적으로 막아야 한다’(44.9%)와 ‘현장별은 물론 직종별로도 일정 허용 비율을 정해야 한다’(40.0%)는 응답이 많음.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음.
- 건설업체 응답에 의하면 ‘외국인력 허용 비율을 정하지 말고 건설업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63.5%)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음. 이것은 내국인력 부족에 대한 반영임.

■ 공존의 조건 : 적정 인력 규모 산정과 적정 노무비의 확보, 처우 개선

- 건설현장의 적정 외국인 근로자 규모 추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 결과(2009)
 - ‘적정 외국인 근로자 규모’란 외국인 근로자가 지나치게 많아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부족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규모를 의미함.
 - 2010년에는 인력 수요가 약 137만 명, 내국인력 공급이 약 129만 명으로 예상돼 적정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약 8만 명인 것으로 추정됨.
- 건설업 취업 동포에 대한 처우 개선
 - 건설 현장에 진입한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가 주어 져야 함. 필수적 제도(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와 상호주의 제도(국민연금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등)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설 현장의 과도한 내국인 대체 억제 방안
 - 건설 현장에서 내외국인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가 지나치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함.
 - 건설업종 차원의 허용 인원 규제(건설업취업등록제 등)와 현장 차원의 규제가 있음.
-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고용을 위한 적정 노무비 확보 방안 마련
 - 공공공사 낙찰률이 90% 이상으로 유지되는 미국 및 호주의 노무비 확보 방식을 참조 하여 정상적인 고용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이것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임.

심규범(연구위원·gbshim@cerik.re.kr)

1월 미국 주택시장, 가격·판매량 하락세

- 신규주택 판매, 세제 지원 연장에도 불구하고 1963년 이래 최저치 기록 -

■ 2009년 12월 주택가격지수 최저치 갱신, 하방 리스크 여전히 강해

- 2009년 12월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 2009년 6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 유지

※ S&P 주택가격지수는 고가주택 대출인 점보론과 서브프라임 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주택가격 자료를 사용함.

- 2006년 5월부터 35개월간 최고점 대비 31.8% 하락. 반면, 최저점(5월) 대비 최근 7개월간 3.6% 상승하였으나 9월 이후 상승세는 둔화됨.

- 중위주택가격을 대표하는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미국 전역 주택가격지수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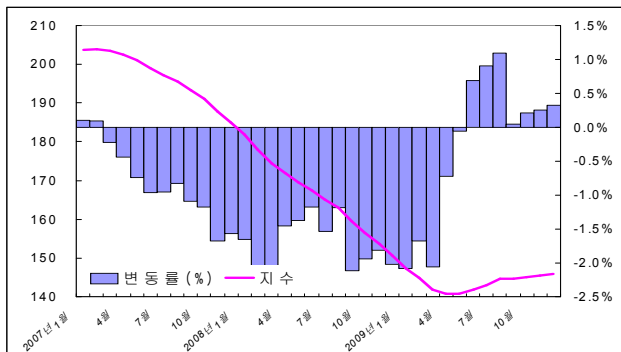
※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는 연방주택국과 정부 지원 기관에서 지급 보증하는 담보대출 자료만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과 고가주택 대출인 점보론 자료는 제외됨.

- 2009년 들어 상승세로 반전하며 19개월의 하락세를 마감하는 듯하였으나, 한 해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나타남.

- 2009년 12월 최저점을 갱신하며 2008년 12월 가격 수준 이하(최고점 대비 12.2% 하락)로 하락하여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강함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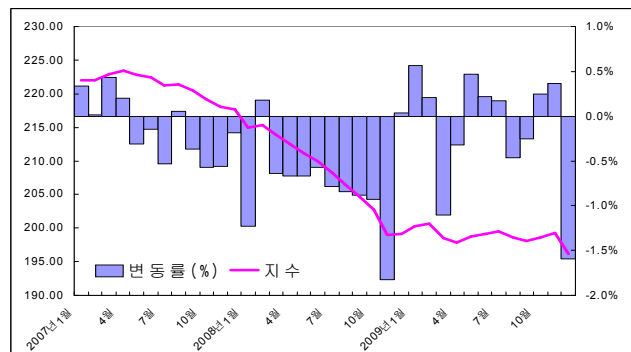
※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미국의 표준화되지 않은 주택 형태로 인하여 신규 자료가 입력됨에 따라 새로운 계수값이 지수가 되어 매월 과거 지수값이 달라지는 지수변경(revision)이 발생함. 증감률 수치 및 방향성 전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장기시계열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

〈미국 주요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및 변동률-S&P〉



주 : 계절조정 후, 전월 대비 변동률
자료 : S&P/Case-Shiller Home Price indices, Composite-20 지수

〈미국 전역 주택가격지수-FHFA〉



주 : 계절조정 후, 전월 대비 변동률
자료 :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US 주택가격지수

■ 1월 재고·신규주택 판매량 하락세 지속

- 연방정부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천 달러 세제 지원책이 2010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및 판매량 하락세가 지속됨.
 - 2009년 11월로 종료가 예정되었던 세제 지원책이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 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됨.
- 재고주택 판매량은 2009년 12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신규주택 판매도 침체 극심
 - 올 1월 재고주택 판매량(전미중개인협회 발표)은 전월 대비 7.2% 감소한 505만호로 집계되었고 2009년 최고치인 11월(649만호)과 비교하면 22.2% 감소함.
 - 올 1월 신규주택 판매(미 상무부 센서스국 발표)는 30만 9,000건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 작성 이래(1963년 이후) 최저치임.

■ 2010년 미국 주택시장, ‘침체 지속’과 ‘수급 균형 도달’ 의견 상존

- 2010년 주택가격은 지속 하락과 소폭 상승세가 혼재하고 있으나 대규모 차압 사태와 판매량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하락 우려가 큰 것으로 전망됨.
 - 올 1월 중위주택 가격(전미중개인협회 발표)은 전월 대비 3.4% 하락했고 가격선행지수인 PHSI(Pending Home Sales Index)도 11월에 큰 폭으로 하락(-16.4%)한 이후 12월 들어 소폭 상승(1.0%)함.
 - ※ PHSI(Pending Home Sales Index)는 주택거래가 완료되었으나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를 지수화한 것으로 2~3개월 후의 주택가격에 대한 선행지수로 사용됨.
 - 2009년 발생하여 현재도 진행 중인 대규모 차압 사태에 따른 과잉 매물로 인해 가격 하락세 지속 우려
- 그러나, 모기지 연체율이 개선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공급 감소에 따라 재고 조정이 이뤄져 2010년 내에 주택시장이 수급 균형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함.
 -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연체율이 4/4분기 9.47%로 최근 3년만에 처음 감소함.
 - 미국 정부가 모기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일방적인 차압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주택 차압 사태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허윤경(연구위원·ykhur@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 3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제과 주최 정책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건설노무제공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수행
3. 4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이온가속기사업 추진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참여 - 희귀동위원소 가속용 중이온 가속기 및 활용연구시설 개념설계사업 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
	U-Home건설협의회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지원 녹색건설·IT 융합 협의를 위한 U-Home건설협의회에 이영환 건설관리연구실장 참여 - 건설과 IT 융합을 활용한 탄소 배출 저감 및 저에너지 고효율화 추진을 위한 ‘녹색건설·IT 융합산업 및 로드맵,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산업화 전략, 스마트그리드의 적용방안 등 지속 논의 예정
3. 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TFT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산업안전분야전문가 TFT’ 구성 및 향후 중점 과제에 대한 자문 수행

■ ‘제5회 건설보증연구포럼’ 개최

- 연구원은 3월 4일(목)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제5회 건설보증연구포럼’을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건설공제조합 임직원 및 원내 보증연구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 이번 포럼에서는 제1주제로 이홍일 연구위원이 ‘국내 건설시장의 미래’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올해 기본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보증론’ 연구 착수보고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개원 15주년 기념 ‘한국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 세미나명 : ‘한국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18일(목) 14 : 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프로그램(안)
 - 제1세션 : 건설시장(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선택 / 2020 국내 건설시장 전망)
 - 제2세션 : 건설산업(건설 정책·제도의 변화 전망 및 향후 과제 /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창출 전략)
 - 제3세션 : 건설상품(2020 건설상품과 기술예측 / 2020 주택·부동산시장의 미래)
- 문의 및 신청 : 기획팀(02-3441-0815, 0816),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참조

건설은 富國으로 가는 핵심 산업

몇 년 전 한 신용카드 광고에서 산타크로스처럼 빨간 옷을 입은 여자 탤런트가 천진스런 모습으로 '부자되세요'라는 광고가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식상한 인사에서 벗어난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호소력 때문인 것 같다.

200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자산 규모는 2억 8천만원이라고 한다. 그 중 약 80%가 주택 등 부동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니 주택·부동산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재화를 넘어 부의 분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자산형성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건설산업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부형성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부조사 결과에 의하면 금융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국부는 GDP의 약 7배에 이르는 6,940조원인데, 그 중 약 35%가 SOC를 비롯한 건설 시설물이었다. 그런데 토지 등 비생산자산이 전체 국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산업에 의해 생산된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계된다. 외국도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니 어느 나라에서나 건설산업은 국부를 형성하는 핵심 산업이다.

대부분의 산업이 일상적인 소비활동과 밀접한데 비해, 건설산업은 사회의 골격이 되는 시설물들을 축적한다는 큰 특징이 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성이 강화되기도 한다. 짧게는 며칠, 길어야 몇 년 쓰다가 버리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건설활동에 임하는 자세는 긴 안목을 가지고, 기본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장기간 자본 스톱을 축적해왔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양과 질 모두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더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 건설투자에 소홀하여 지난 10년 동안 실질 인프라 투자는 16.3%나 감소하였다. 저조한 시설투자가 장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국내에서는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다. 훌륭한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특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건설산업이 자신의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첩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건설산업이 선진국다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바란다. <아주경제, 2010. 02. 24>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